

김정한 미발표 장편 자전소설 연구*

- 식민지 근대의 기억과 자기재현의 양상

김 경 연**

차 례

- | | |
|--|---------------------------------------|
| 1. 간극의 독해 - '반골인생'과 '허덕
이다 보낸 인생'의 사이 | 3. 식민지 근대의 기억/재현과 여성 서
사의 구현 |
| 2. 김정한의 미발표/미완성 자전소설
의 전모(全貌) | 4. 수난/저항의 서사와 공백의 기록 |
| | 5. 결론을 대신하여 - 새로운 휴머니
즘으로서 민중서사의 길 |

국문초록

이 글은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한의 자전소설을 발굴하고, 식민지 근대를 기억/기록한 요산의 자기재현 서사가 지닌 특징적 양상을 독해하였다. 2008년 요산기념사업회에 의해 발굴된 김정한의 자전소설은 '오실부락', '낙동강', '마르지 않는 강' 등 복수의 표제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마르지 않는 강』이 1928년부터 1945년 해방 직후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고, 미완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분량 상으로도 『오실부락』, 『낙동강』과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비교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가 구상한 자전소설의 최종적인 귀결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김정한 자전소설의 전모(全貌)를 살폈는데, 『오실부락』, 『낙동강』, 『마르지 않은 강』이 모두 1928년 봄 ‘분옥’의 우귀신행으로부터 시작되며 요산의 유년기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 부재하는 아들/청년 대신 아버지/노인과 며느리/여성이 집과 고향을 지키고 노동과 생활의 주체가 되는 요산문학의 특성이 발견된다는 점, 아울러 모두 미완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자전소설의 구체적 독해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은 재현의 전략을 간취할 수 있었다.

첫째, 요산 자신을 형상화한 ‘일철’과 더불어 아내 조분금을 모델로 한 ‘분옥’이라는 여성인물을 통해 식민지 근대를 기억/재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이나 구여성 등 전근대적인 타자로 배제된 자들을 비근대적인 주체로 달리 발견해온 요산문학의 특성이 투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자전소설은 『수라도』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자전소설의 분옥이나 분옥의 할머니가 『수라도』의 ‘분이’나 ‘가야부인’을 직접 환기할 뿐만 아니라, 민중성을 체현해가며 집안을 지지하는 며느리이자 어머니로 이행해가는 여성성장서사의 형식을 두 소설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 역시 분명한데, 『수라도』의 가야부인이 역사의 변화와 합류하고 가부장제와 협상하는 능동적 주체로 표상된 데 비해, 자전소설의 분옥은 역사와 연루되기보다 여성의 수난을 부각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구여성의 전형적 형상을 끝내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식민지 후반기 역사적 기억의 주체로 일철을 발탁하기는 하지만, 자전적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철(요산)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것 역시 주목할 지점이다. 이는 개인보다 가족에 투사된 민족의 수난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구상이 관철된 것일 수 있으나, 지식인보다는 농민/민중의 토착적 현실을 탐사해온 요산문학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한편 요산이 투영된 일철은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반항하는 불은

한 지식인으로 재현되며, 일철을 통해 구성되는 식민체험은 불령선인의 지난한 저항서사로 균질하게 기록된다. 일본인 되기를 욕망한 친일파만이 아니라 식민화의 기율을 일상과 신체에 은연중에 내면화해 가는 내선인(內鮮人)을 주조하는 것이 식민주의의 실체라면, 이처럼 균열을 삭제하고 수난과 저항으로 일관된 요산의 균질적 서사는 식민주의의 이 위험한 실질이 역설적으로 투사된 텍스트이며, 식민주의의 공포를 공백으로 기입한 식민지 근대 체험의 적나라한 기록일 지도 모른다.

주제어 : 김정한, 자전소설, 『마르지 않는 강』, 『오실부락』, 『낙동강』, 식민지 근대, 자기재현, 여성서사, 식민주의, 휴머니즘, 민중서사

1. 간극의 독해 - ‘반골인생’과 ‘허덕이다 보낸 인생’의 사이

‘반골인생’은 요산 김정한의 생애를 지시해온 가장 낮은 수사이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에 태어나 세 살 때 조국을 잃었고 식민지배와 전쟁, 분단과 독재로 이어지는 지난한 한국의 근대사를 통과하면서 부당한 권위에 도전하고 부정한 권력에 저항해온 삶.¹⁾ 그리하여 ‘불온(不穩)’은 김정한의 평생을 구속해온 낙인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온’이란 이름의 딱지를 함부로 붙여대던 더러운 역사”²⁾와 타협하기를 일관되게 거부했던 일생. 요산의 삶을 수식하는 ‘반골인생’이란 그러므로 폭력적인 역사가 개인에게 부과한 비극적 하중을 환기하는 동시에, 불순한 권력에 부여하기를 거절했던 윤리적 인간에게 부여하는 헌사이자, 또한 요산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구축해온 투명한 자기서사이기도 하다.

1) 김정한, 『반골인생』, 『낙동강의 파숫꾼』, 한길사, 1978, 77~84쪽 참조.

2) 김정한, 『不穩이라는 이름의 딱지』, 앞의 책, 86쪽.

그런데 요산을 지지해온 이 명징한 서사를 동요하는 또 다른 그의 자서(自書)를 만나게 된다. 『반골인생』(1974)보다 한 해 앞서 발표한 『허덕이다 보낸 인생』(1973)이다. 부산 문인협회 지부장이었던 박문하의 권유로 쓰게 되었다는 이 에세이에서,³⁾ 요산은 “작가적 자서전” 쓰기의 불가능함을 토로하며 “망설이고 허덕이다가” 지나온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기록은 자전(自傳)이 아니라 차라리 “참회록”일 것이며, “안개”는 허덕이며 보내온 그의 일생을 표현하는 가장 유력한 비유일 것이라 언급한다.⁴⁾ 물론 이 같은 연사는 노작가의 겸양이며 파국의 역사 속에서 내내 위태로웠던 자신의 일생을 성찰하는 의례적 발화일 수도 있을 터다. 그럼에도 이 예외적인 기록 속에서 우리는 ‘반골인생’이라는 균질적 서사가 누락하거나 삭제해온 이질적 흔적을 감지하게 된다. 어쩌면 그것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김가(金哥)’라는 성 대신 ‘금곡(金谷)’이란 일본식 성을 가져 보았다가 그것마저 빼앗기고, 다시 ‘1147’이란 번호로 불리게”⁵⁾ 된 자신의 불투명한 실존에 대한 요산의 고뇌가 투사된 흔적은 아니었을까. 같은 글에서 요산은 식민지 청년이었던 그가 문학에 엄두를 낸 것은 “용감하게 민족해방 운동에 몸을 바칠 용기가 없었던”(268) 자의 차선(次善)이었으며, 누구를 구원하기보다 자신을 위무하려는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문학을 해 보겠다고 엄두를 낸 동기부터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항일 학생운동이 전국을 통해서도 심했다는 동래고보 4~5학년 때부터 문학에 엄두를 내기 시작했다고 기억되는데, 물론 한 서너 번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동맹휴학 사건에 관계는 있었지만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민족 해방을 위한 비밀결사 같은 데 들어가 계속 일을 해볼 용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결국 문학에 기울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누구는 민족을 계몽시키기 위하여 문학의 길을 택했노라고 큰 소

3) 이순욱, 『1940년 6월 요산 김정한의 귀향 전후』, 『근대서지』 8호, 2013, 240쪽 참조.

4) 김정한, 『허덕이다 보낸 인생』,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266쪽, 267쪽.

5) 김정한, 『행복의 창』, 『낙동강의 파숫꾼』, 13쪽.

리를 하였다지만 내 경우는 허불실 문학을 통해서라도, 민족적 감정을 배알지 않으면 생의 구차스러운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으리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문학에 엄두를 낸 것이 된다.⁶⁾

식민지시기 자신에게 문학은 해방투쟁이나 민족계몽을 위한 대설(大說)이라기보다 이 지엄한 대의(大義)에 과감히 투신하지 못한 자의 분노와 변민의 기록이었다는 요산의 이 같은 고백을 기실 기왕의 요산문학 연구가 별반 주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일본군국주의 치하에서 반골인생으로서”⁷⁾ 살아온 김정한에 대부분 집중해온 요산문학 연구는 가령 일제말기 친일로 나아간 춘원을 비판했던 한용운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나도 창씨를 했던 사람이라 만해 선생의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⁸⁾고 고백했던 요산의 성찰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고, ‘반골인생’과 ‘창씨를 했던 사람’ 사이의 요산(문학)의 틈새를 읽어내는 데는 등한했다. 그 결과 “한평생 반식민, 반독재와 싸우면서 도피와 구급의 시간을 되풀이한”⁹⁾ 반골작가라는 요산의 명성은 반복 생산되고 강화된 반면, 굴곡진 현실을 통과해온 역사적 개인으로서 요산을 천착하고 한 인간의 실존적 기록물로서 그의 문학을 독해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 물론 이는 요산 스스로가 1941년 이후부터 1966년 『모래톱이야기』로 문단에 복귀하기까지 25년 동안 절필했다고 확인함으로써, 한 논자의 지적처럼 “일제말과 정부수립 이후 그가 겪은 굴욕의 경험을 팔호” 치고 “역사의 치욕 앞에 선 작가의 고뇌”를 치열하게 사유하려는 “실존적 감각”¹⁰⁾을 결여한 원인 역시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작가의 발언에 잠재된 침묵

6) 김정한, 『허덕이다 보낸 인생』, 앞의 책, 267쪽.

7) 김정한, 『책머리에』, 『낙동강의 파숫꾼』, 3쪽.

8) 김정한, 『집장이는 큰 일을 못한다』, 『사람답게 살아가라』, 210쪽.

9) 조갑상,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징함』,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 새미, 2002, 23쪽.

10)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 55쪽.

을 탐문하지 않고 ‘반골인생’이라는 욕망을 초과하는 ‘부끄러움’¹¹⁾을 정독하지 않으면서, “불의에 대한 항변과 증언으로서의 문학”을 일관되게 수행해온 민족문학운동의 전위로 요산을 투명하게 읽고자 한 연구자들의 관성적 독법 역시 요산이 “생체험의 중대 부분을 결락”¹²⁾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지하듯 1943년 잡지 『춘추』에 수록된 요산의 희곡 『인가지(隣家誌)』를 발굴하고 이를 “부왜매체에 한글로 발표된 부왜희곡”이며 “부왜적인 뜻을 일깨우는 데 모자람이 없는 됴됨이를 갖춘 ‘국책극’”¹³⁾으로 판단한 박태일의 연구는 종래 요산문학 연구의 전회를 촉발했다. 임종국이 『친일문학론』(1966)¹⁴⁾에서 친일 관련 작품목록에 올렸던 『인가지』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박태일의 연구는 그 해석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김정한의 ‘절필담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요산문학의 전모를 확인하면서 또 다른 논의의 가능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일의 연구 이후, 가령 요산에 부여된 기왕의 문학사적 위상을 “저항과 투쟁으로 일관한 반골정신의 작가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요산의 욕망과 70년대 민족문학운동 진영의 욕망이 공묘”한 결과로 적시하거나, 요산이 “스스로 만든 형이상학적인 작가상에 몰두함으로써 강렬한 자기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타자(여성, 민족, 농촌)를 관념적으로 재단”하는 “진보주의적 보수성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적발한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기왕의 요

11) 윤정규, 「요산 김정한이 겪은 해방정국」, 『역사비평』 30호, 1995, 65~72쪽 참조. 말년(87세)의 요산의 구술을 기반으로 윤정규가 작성한 이 글에서 김정한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나라 위해 한 몸을 바칠 만큼 용기가 없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이런 말이 결코 겸손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12) 최원식, 앞의 글, 55쪽.

13) 박태일, 「김정한의 희곡 『隣家誌』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9호, 110쪽.

14)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479쪽.

산문학 평가에 대해 비판했던 “해석의 정치”¹⁵⁾를 역으로 발동한 독해로 읽힐 우려 역시 없지 않다.

이와 같은 해석의 과잉을 경계하면서 “부당한 망각 못지않게 부당한 기억도 문학사의 추문임이 분명”하지만 “부당한 기억에 대한 반성이 작품과 맥락 사이의 대화적 관계, 사실과 해석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다”¹⁶⁾면 그 역시 문제적이라는 황국명의 지적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이 온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령 그가 요산의 소설 『월광한』(1940)을 “분위기나 이국정취로서의 낭만이 아니라 삼엄한 식민지 현실을 부정하는 낭만”을 재현한 소설로, 희곡 『인가지』를 “표면적으로 진중보국, 멸사봉공이라는 추상적 이념을 반영하면서 심층적으로 그것에 맞서”¹⁷⁾는 작품으로 해석할 때, 요산문학 연구의 윤리적 전회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김정한의 문학을 저항문학의 일관된 토대 위에 정초하려는 연구자의 의지가 관철된 독해로 납득되는 것이 사실이다.

요산문학을 둘러싼 이러한 해석의 쟁투 속에서 일제말기 요산의 소설과 『인가지』에 대한 구모룡의 시각은 참고해 볼 만하다. 그는 우선 『낙일홍』, 『월광한』등 1940년대 요산의 소설이 “현실의 욕망으로부터 물러나 침묵하려는 그의 입장을 담고” 있으며, 희곡 『인가지』의 창작은 식민 권력의 “회유 또는 강제에 의한 협력”으로 판단한다. 구모룡에 따르면 “망명을 선택하지 않은 식민지인에게 전시체제란 저항과 협력의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색지대와 같”으며, 따라서 “『인가지』는 조선어 허용이라는 틈새를 활용하면서 강요된 협력이라는 제국의 폭력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요산의 고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인가지』가 식민제국의 지원병으로 가야하는 조선인 청년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당시 상황에 무지한 민중적 일상이 과장된 채 진경화되어 있”다는 점에

15) 전성욱, 『해석의 정치-요산 김정한론』, 『동남어문논집』 제28집, 2009, 5쪽, 17쪽.

16) 황국명, 『요산문학 연구의 윤리적 전회와 그 비판』, 『한국문학논총』 제51집, 2009, 291쪽.

17) 위의 글, 303쪽, 309쪽.

주목해 “실제의 민중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발생”한 『인가지』를 국책극이라기보다 “세태극”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한다. 구모룡에 의하면 이는 요산이 식민제국의 요청에 협력하면서도 일정하게 일탈의 가능성을 열어둔 결과라는 것이다.¹⁸⁾

구모룡의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얻은 것은 저항과 협력의 선명한 이분법으로 일제말기 요산과 그의 문학을 읽어내려는 독법들과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기실 식민지 말기 요산(문학)에 대한 논의들은, 가령 “김가(金哥)라는 성 대신 ‘금곡(金谷)’이란 일본식 성을 가졌다가 다시 ‘1147’이라는 수인번호로 불리게 되는’ 요산의 굴절하는 실존과 온전히 대면하기보다, 제국에 저항한 불령선인으로 요산을 일관되게 추대하거나, 반대로 카나와(金谷)로 전향하며 일제에 협력한 부역자로 요산을 심문하려는 상반된 욕망에 자주 유인되는 것이 사실이다. “식민지교육 밑에서,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을 뿐 한번 회의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관념, 이것을 나는 해방 후에 얻었고 민족이라는 관념도 해방 후에 짝튼 생각이었다”¹⁹⁾는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의 고백에서도 간취되듯이, 저항과 협력으로 분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의 생산이 식민주의의 유력한 본질이며, 때문에 이 사이지대를 통과하는 요산의 행로를 편향 없이 독해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식민지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요산의 미발표 자전소설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 글 역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자 한다.

지난 2008년 요산기념사업회는 요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요산문학전집 발간을 기획했고 자료수집 과정에서 기존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 원고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두 편의 단편과 다수의 완결되지 않은 장편소설인데, 이 가운데 ‘오실부락’, ‘낙동강’, ‘마르지 않는 강’ 등의 표제가 붙은 원고들은 요산의 개인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자전적 소설

18) 구모룡, 『21세기에 던지는 김정한 문학의 의미』, 『창작과비평』, 2008, 365~366쪽.

19) 임종국, 『자화상』, 『친일문학론』, 6쪽.

이다.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에세이 『이윽고 나와 함께 늙은 아내에게』(1979)에서 자신과 아내가 지나온 “과거에는 대체로 남다른 고비와 고통이 많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때로는 뒤늦스럽게 자서전 같은 글이라도 써 볼까 하는 엄두도 내 보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²⁰⁾이라 언급하기도 했던 요산은, 다시 1980년대 후반 “내 아이들을 위해 자서전적인 장편을 하나 쓰고 싶다”²¹⁾(『윤좌』17집, 1987. 11)는 뜻을 피력한 바 있었다. 이후 『윤좌』20호의 『동인소식』은 “스스로도 ‘마지막 작품’이라고 이르는 자서전적인 작품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고 요산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89년부터 ‘나의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려 남기고 싶다’시면서 집필활동에 들어간 ‘자전적 작품은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 탈고될 것인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²²⁾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기록물들을 참고할 때, 『오실부락』, 『낙동강』, 『마르지 않는 강』 등은 요산이 1970년대 말부터 구상하고 1980년대 말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갔으나 1996년 타계하기 이전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자전적 소설로 판단된다. 주지하듯이 요산 김정한에게 행동과 글쓰기, 삶과 문학은 밀착된 것이었고 ‘체험의 서사화’는 요산 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다.²³⁾ 김정한 스스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박한 암흑시대를 살아온 작가로서 행동은 불가결한 것이었고, 생활의 전부를 문학에 기투할 수 없었기에 체험에 주력하는 글쓰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²⁴⁾ 요산에게 ‘발로 쓰는’ 문학, 즉 “현실을 부동켜안고 현실에 파묻혀서 쓰는”²⁵⁾ 문학은 그러므로 필연적이었으며, 시대의 증언자로서 작가가 보

20) 김정한, 『이윽고 나와 함께 다 늙은 아내에게』, 『사람답게 살아가라』, 287쪽.

21) 황국명, 『요산 미발표작품 전시회 원고』, 『김정한문학관 자료집』, 2010, 164쪽 재인용.

22) 위의 글, 164쪽 재인용.

23) 최미진,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제54집, 2010, 247~251쪽 참조.

24) 김정한, 『도도한 탁류 속에 살다』, 『사람답게 살아가라』, 299쪽.

유해야 할 당위적인 태도이기도 했을 터이다. 말년의 자전소설 역시 이러한 요산의 문학관의 연장선에서 집필되었으며, “자신의 생을 곧 역사로 여긴”²⁶⁾ 그에게 생애 마지막으로 시도한 작품이 자전소설이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허구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감추기보다 투기(投企)하고 고백해야 것이 자전소설이며, 자기 인생의 의미를 표백(表白)해야 하는 것이 자전적 서사의 규약이라면,²⁷⁾ 요산이 자기재현적 서사를 통해 자신의 삶과 그에 연루된 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과정을 탐사하는 일은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미완으로 끝난 이유가 크겠으나, 김정한의 자전소설이 다루고 있는 시기가 일제강점기라는 사실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익히 알다시피 이 시기는 요산 김정한이 역사를 체감하고 문학에 입문했던 원체험의 시공간이자 ‘불령선인’과 ‘금곡정한(金谷廷漢)’이 이접되었던 시절이며,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가 자신에 관한 모든 발화에서 특정 기억을 결락한 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전(自傳)’이라는 차원에서 투쟁과 굴절이 겹친 이 혼돈의 시기를 서사화하기 위해 저자가 동원하거나 배제하는 기억, 그 배치의 양상 등을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아울러 ‘소설’의 차원에서 요산의 자전적 소설이 여타 요산 문학의 특이성들과 조우하거나 변별되는 지점을 독해하는 일 역시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요산의 미발표/미완성 자전소설의 전모를 살피고자 한다.

25) 김정한, 『문학의 시대성』, 『사람답게 살아가라』, 249쪽.

26) 조갑상, 앞의 글, 26쪽.

27) 필립 르퀼,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261~262쪽 참조.

2. 김정한의 미발표/미완성 자전소설의 전모(全貌)²⁸⁾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요산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김정한의 생전 미발표 자전소설은 ‘오실부락’ ‘낙동강’, ‘마르지 않는 강’ 등의 제목이 붙은 원고들이다. 모두 완결되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으며, 자서전이 아닌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인물들은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으며 일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김정한의 생애 이력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는 만큼 요산의 자전적 소설로 보는 것은 무방해 보인다. 필립 르죈에 따르면, 언술된 내용에서 저자와 주인공이 유사성을 갖는 텍스트는 ‘자전적 소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저자가 그 텍스트를 자신의 이야기라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자가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간취하고 작가와 주인공을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전적 소설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전적 소설은 서술자/작가와 주인공의 동일성을 환기하는 일인칭뿐 아니라 주인공이 삼인칭으로 지칭되는 이야기까지 포함될 수 있다.²⁹⁾

요산의 자전소설은 『오실부락』, 『낙동강』, 『마르지 않는 강』 그리고 제목이 명기되지 않은 원고까지 복수의 표제로 집필되었으며 그 선후관계의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마르지 않는 강』은 동일 제목의 원고들이라 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의 연속성이 부재한 경우 역시 발견된다. 다만, 이들 텍스트가 모두 요산의 아내 조분금을 모델로 한 ‘분옥’의 우귀 신행으로부터 시작해 요산과 그의 가족사를 기록/재현하고 있으며,

28) 요산기념사업회는 2017년 제20회 요산문학축전의 심포지움 주제로 ‘미발표작을 통해 본 요산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기획했고, 이를 위해 2008년 발굴해 보관하고 있던 요산의 미발표작 원고들을 연구자들에게 공개했다. 본 논문은 이 심포지움의 일환으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소중한 자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요산기념사업회와 요산문학관에 감사드린다.

29) 필립 르죈, 앞의 책, 35쪽.

텍스트들마다 다소 상이하긴 하나 1928년부터 1945년 사이의 시기를 다룬다는 점, 아울러 모두 미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이들 자전소설의 주요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목	구성	주요사건	시대배경	분량
오실부락	10장	분옥의 우귀신행, 울산 대현 공립보통학교 시절 교원연맹 결성, 피검과 교사직 해임, 일철의 일본 유학 결정	1928~1929	158쪽 (미완)
낙동강	2부 19장	분옥의 우귀신행 ~ 일본 유학, 양산농민봉기사건 심폐운동으로 피검, 학업 중단	1928~1932	470쪽 (미완)
마르지 않는 강(1)	성하동(1)~(5) 수난제1기(1)~(2)	분옥의 우귀신행 ~ 남해공립보통학교 부임, 아들 주호의 죽음, 신사참배 갈등, 「사하촌」당선과 후일담	1928~1936	284쪽 (미완)
마르지 않는 강(2)	수난제1기(3)~(7) 섬살이(1)~(5)			
마르지 않는 강(二)	허물어져 가는 꿈 (5)~(6)	분옥의 친정나들이, 아들 주호의 죽음	1932~1933	40쪽 (182~221)
마르지 않는 강(三)	섬살이(1)~(17)	가족의 남해생활, 일본인 교장과의 불화, 신사참배 갈등, 「사하촌」당선과 후일담, 황민화정책 강화와 조선어과목 폐지, 일본인 산림주사와 시비, 남명소학교 전근	1934~1939	238쪽 (222~460)
마르지 않는 강(四)	굴욕의 시대 (1)~(10)	「사하촌」과동 ~ 계절노동자로 팔려 다니는 해녀들과의 만남, 창씨개명 강요, 절필의 뜻을 굳힘, 교사 사직, 동아일보 동래지국 인수	1936~1940	147쪽 (518~665)
제목 없음	2차대전 막바지 (1)~(7) 해방을 찾아서 (1)~(3)	동아일보 동래지국 인수, 치안유지위반으로 피검, 면포조합 취직, 창씨개명, 아버지의 죽음, 불령선인에 대한 위해 소식에 피신, 일본항복 선포와 해방	1940~1945	168쪽 (628~796)

마르지 않는 강 (개작본)	17장	분옥의 우귀 ~ 일본 패배로 2차대전 종료, 일본 거주 한국인들 귀국	1928~1945	130쪽 (미완)
제목 없음	4장	분옥의 우귀, 아들 주호의 죽음, 남해생활	1928~1937	56쪽 (미완)

*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연결되는 텍스트인 『마르지 않는 강』(1)과(2)를 A로, (二)를 B, (三)을 C, (四)를 D로, 제목 없이 '2차대전막바지'와 '해방을 찾아서' 로 구성된 원고를 E로, '마르지 않는 강(개작본)'을 F로, 제목이 명기되지 않은 또 다른 원고를 G로 표기한다.

『오실부락』은 1928년 봄 분옥이 시택이 있는 '오실'로 우귀 신행을 가는 장면부터 시작해, 울산 대현학교에서 조선인 교원연맹 사건을 주도하다 해임된 '일철'이 친지들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되는 장면에서 끝이 난다. 1928~29년 사이 요산의 주요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 '오실부락'이라는 표제로 미루어 작가가 기획한 자전소설 전체에서 요산의 남해 시절 이전만을 다루려던 부분으로 보인다.³⁰⁾ 별도의 제목이 없이 숫자로만 장을 구분하고 있으며, 『낙동강』이나 『마르지 않는 강』과 비교해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원고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 텍스트보다 앞서 집필되다 중단된 것으로 짐작된다.

유일하게 세로 원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은 분옥의 우귀 신행부터 일본에서 일시 귀국한 일철이 양산 농민봉기사건에 연루돼 피검되고 이에 일본 유학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까지를 그리고 있다. 총 19개 장에는 차례로 '시집가는 날, 해가 거꾸로 뜨는 마을, 시늬올케, 일순의 부상, 장 담그는 날, 가택수색, 시련의 자취, 짐을 찾으러가던 날, 돌아온 남편, 모내기철, 근친, 야학당, 일본유학설, 서방 없는 시집살이, 첫 아이, 일철의 학비, 사내들의 세계, 학업중단'의 제목이 부여되어 있다. 장의 표제에서 짐작되듯이, 삼인칭 시점의 소설이긴 하지만 주로 분옥이 초점

30) 요산은 1932년 양산 농민투쟁에 연루돼 피검된 후 일본 유학을 중단하게 되며, 1933년부터 1940년 초까지 남해로 내려가 보통학교 교사로 생활하게 된다.

화자로 선택되며, 특히 요산의 남해시절 이전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요산을 모델로 한 일철보다 아내 조분금을 형상화한 분옥이 서사를 견인하는 중심인물이 된다. 분옥의 경험과 시선을 통해 친정과는 다른 시대의 완고한 가부장적 분위기가 부각되며, 남편 없이 고된 시집살이에 내몰리는 분옥의 내면이 조명되고, 일철을 포함한 인물들의 성격과 행적이 독해되고 있다. 이는 『낙동강』뿐 아니라 『오실부락』이나 『마르지 않는 강』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지점이다.

한편 『낙동강』에는 분옥, 일철, 일철의 아버지인 오실어른과 같은 중심인물들 외에 주변 인물들 역시 다수 등장해 생동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가령 친정이 김해 녹산이라 녹산택으로 불리는 분옥의 친정 할머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형제와 같다고 하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받았음인지 인아친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사람을 다 아끼고 사랑하려고 드는” 인자한 어른, “사람이 사람 업신여기는 건 무엇보다 싫어하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배우려는” 할머니, “만 가지 일을 다 잘 아는” 지혜로운 인물로 형상화되며 분옥의 삶에 시종일관 지침이 되는 존재로 환기되는데, 요산의 아내인 조분금의 처조모를 형상화한 ‘녹산 할머니’는 알려졌듯이 ‘가야부인’(『수라도』)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³¹⁾

그런가 하면 일철의 여동생이자 분옥의 시누이로 등장하는 ‘일순’은 남편 없이 고된 시집살이를 감당하는 울케 분옥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유일하게 “동병상련”하는 존재로, 또한 시어머니의 남성 “편애주의”에 도발하며 배움을 고수하고 향학열을 발동하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성격”의 적극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분옥과 일철 등 소수의 인물들에 집중하며 비교적 단조롭게 서사가 진행되는 『오실부락』이나 『마르지 않는 강』에 비해 『낙동강』은 시대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로 인해 번민하고

31) 조갑상, 앞의 글, 15쪽. 조갑상에 따르면, 김정환의 아내 조분금의 처조모가 『수라도』 가야부인의 모델이며, 오봉선생은 처가가 있는 양산 화계리 뒷산에서 태어난 것이라 한다.

절망하는 분옥의 내면을 섬세히 묘사하고, 가족을 구성하고 마을과 가문을 지지해온 공동체의 노인들을 부조하는 한편, 사건에 연루되는 인물들을 다양하게 배치함으로써 서사적 실감을 더하고 있다. 때문에 『오실부락』, 『마르지 않는 강』과 비교해 『낙동강』은 미학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텍스트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철이 양산 농민봉기사건으로 침체된 농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심피사이저 운동을 벌이다 검거되면서 일본 유학을 중단하게 되는 1932년에서 『낙동강』은 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작가는 『낙동강』 집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소설을 기획했고 그 결과 『마르지 않는 강』이 집필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낙동강』과 『마르지 않는 강』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마르지 않는 강』이 1928년부터 1945년 해방 직후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미완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가장 많은 분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가 구상한 자전소설의 최종적인 귀결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마르지 않는 강』은 요산이 남긴 미완의 자전소설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B와 C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E는 제목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상 『마르지 않는 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D와 직접 접속되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이어지는 원고로 보인다. ‘개작본’이라 표시된 F는 1928~1945년까지를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소설적 형상화는 미흡하며 역시 미완으로 끝나고 있다. 17년간의 삶의 내력을 짧은 분량에 담은 것으로 보아 식민지시기를 넘어 보다 장기간의 서사를 다루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G는 제목이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한두 장이 탈락된 것 외에 F의 전반부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 『마르지 않는 강』을 개작하는 과정의 일부라 판단된다.

한편 A는 다른 텍스트들과 달리 작품 전반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일철의 고향이 ‘오실마을’이 아닌 ‘성하동’으로, ‘오실어른’, ‘오실 김장’의로

지시되던 일철의 아버지가 ‘성하어른’으로 달리 호명된다. 아울러 『오실부락』이나 『낙동강』과 비교해 ‘성하어른’인 분옥의 시아버지가 한층 부각되기도 하는데, 여타의 텍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을 서당이 아닌 학교에 보낼 만큼 일찍 “개명”하고, “사람들은 모두 제 살기 위해 야단들인데 고생 사 가며 남을 위해 좋은 일 하는” 인물로 재현된 데 더하여, “안식구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 산수도를 끌어”오거나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새로운 일화들을 삽입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민족의 현실 역시 자각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오실부락’이라는 단일한 표제 아래 일본 유학 이전 일철과 그 가족의 서사를 기술했던 『오실부락』이나, 사건/일화 중심의 제목을 각 장에 부여해 일철의 남해생활 이전을 서술했던 『낙동강』과 달리, 『마르지 않는 강』에서는 장의 제목을 통해 개인/가족사에 민족사의 의미를 투사하고 있다. 가령 A에서는 일철이 교사로 첫 부임한 학교에서 일본인 교장과 불화하다 조선인 교원동맹 사건으로 피검되는 시점부터 1933년 양산농민투쟁 심폐운동을 주도하다 재차 검거되는 때까지를 ‘수난제1기’로 명명함으로써 일철과 가족의 수난에 연루된 민족의 수난을 환기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본이 중일전쟁을 개시하고 내선일체를 압박하기 시작한 1930년대 후반부터 악화되는 민족말살의 사태에 절망하고 교사직에 회의를 느낀 일철이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인수하기까지의 상황을 서사화한 D의 부제는 ‘굴욕의 시대’로 되어 있으며, 아울러 교사직을 그만두고 신문지국을 운영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삼차 피검되는 1941년부터 경남면포조합 서기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다 해방을 맞게 되는 일철의 행로를 기록한 E의 부제는 시대를 환기하는 ‘2차대전 막바지’, ‘해방을 찾아서’로 명명되었다.

한편 1934년 3월 분옥이 딸과 함께 남편 일철이 있는 남해로 내려오는 장면부터 일철이 남해공립보통학교에서 다시 남명소학교로 옮겨가는 1939년까지 요산의 남해시절을 다룬 C의 부제는 ‘섬살이’로 되어 있으나

역시 동명의 제하에 남해시절 일부를 기록한 A의 (2)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C는 ‘허물어져 가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5, 6장만이 남은 B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앞부분에 작가가 기록해 놓은 메모를 참조하면, B는 A와는 별개로 집필된 『마르지 않은 강』의 2부에 해당되며 총 6장(원고지 93쪽 분량)으로 기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발굴된 원고에서 나머지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다.

C에는 ‘신접살이’에서 ‘섬살이’로 제목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혼인 후 처음으로 아내, 자식들과 온전히 함께 살게 된 일철의 일상사에 적지 않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물론 일본인 교장이나 식민 관료들과의 불화 역시 수시로 조명되는데, 특히 신사참배에 얽힌 일화는 C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서사화한 다른 텍스트들에서도 공통되게 언급된다. 그러나 재현되는 양상에는 다소의 편차가 발견된다. 내선일체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신사참배를 강행하게 되었고 기독교도였던 여학생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촉발한 일화는, 가령 C에서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일철에게 심한 자괴감을 유발한 사건 정도로 기술되나, A에서는 “깊은 참회”에 빠진 일철이 이후부터 학교와 거리를 두고 학생계몽운동이나 국산품애용운동 등을 주도하는 지방의 민족적 인사들과 교류하며 중단하고 있던 소설 창작을 다시 시작하는 동인이 되고, 아울러 기독교계 학교와 달리 불교계통 학교에서는 신사참배에 별다른 저항이 없는 것에 주목하고 “사답이 많은 절과 그곳 승려들의 반민족적 비행을 바닥에 까는 농민소설”, 곧 『사하촌』을 집필하는 계기로 서술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D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당연한 저항 앞에서 고뇌하는 일철의 “착잡한 심정”이나, 생존을 위해서는 식민정부에 협력해야 하는 교사직에 대한 일철의 회의가 심화되는 장면들이 전경화되고 있다. 일제의 통치전략이 조선인의 황민화로 선화한 1930년대 후반을 서사화한 D는 이와 같이 조선의 정세가 악화되면서 깊어지는 일철의 “정신적 불안”을 주로 초점화 한다. 특기할

것은 민족을 삭제하려는 과국적 사태가 비단 식민권력에 의해 강제될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협력에 의해 강화되는 지점을 부각한 대목이다. 조선어과목 폐지를 통한 언어의 말살이나 조선방공협회 조직을 통한 사상의 단속,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동원하기 위한 일상의 규율 등이 외부적 억압을 적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선인의 완전한 황국신민” 되기를 촉구하는 녹기연맹의 언설은 내부적 균열을 적발하기 위한 서사적 배치일 것인데, 이는 같은 시기를 포함하고 있는 C와 E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내외부적 압력에 “날이 갈수록 견디기 어려운 굴욕”을 느끼고 끝내 교사직을 그만둔 일철이 동아일보 지국을 인수하는 상황부터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는 시점까지를 서사화한 E에서는 일철이 동아일보 독자들을 회집했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피검되는 사태, “경남면포조합이란 물자 통제 단체의 서기 자리”를 맡게 되면서 말단관리로 제국의 정책을 수행하는 상황, 해방을 목전에 두고 일제가 불령선인을 위해한다는 정보에 피신하게 된 일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이 주요한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식민말기를 다룬 E의 전반부를 지배하는 정서가 “비분강개”라면, “신문과 잡지들이 강제 폐간되고 조선어 서적 출판도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성도 말도 빼앗기는” 악화된 국면을 배경으로 하는 후반부에서는 ‘체념’이 유력한 정서로 읽힌다. 민족적 위기는 가중되거나 “지하운동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과히 나쁜 짓 않고 생명이나 부지하면 다행이라 생각”하는 일철의 절망적 무기력이 감지된다.

한편 인물들의 이러한 감정적 편린이나 상황을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 묘사 등이 대부분 소거된 채 마치 연대기처럼 주요한 사건이나 일화만을 나열하는 데 주력한 서사가 개작본으로 부기된 F이다. 이는 ‘분옥의 우귀, 농사일 구덩이, 친정 나들이, 남편을 찾아서, 길쌈, 버찌소동, 교장들의 작태, 회나뭇골집, 교사들의 사랑놀이, 점심도시락, 교사들의 술자리, 사하촌 파동, 사하촌 후일담, 옥심이, 낙일홍, 조선어교육 폐지, 2차

대전 종료'와 같은 장의 제목을 통해서도 일정하게 간취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작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언급했듯이 요산이 해방 이전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를 포괄하는 자전적 소설을 다시 구상하면서 식민지시기의 서사를 대폭 축약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소설 창작에 얽힌 일화들이 주요하게 소개된 것 역시 F의 특징이다. 작품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사하촌』에 국한되었던 다른 텍스트들과 달리 F에서는 등단작 『그물』(1932)과 『인가지』(1943)를 제외한 식민지시기 요산이 발표한 모든 소설들이 언급되고 있다. 가령, 『사하촌』당선 이후 보광사 불교청년단원들로부터 협박과 위해를 당한 분풀이로 다시 승려를 소재로 한 작품을 쓰기로 작정했고, 이에 일철의 집안사람으로 일본에 유학할 당시 학비를 지원해주기도 했던 구두쇠 승려 만송당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는 '사하촌 후일담'을 통해서 『추산당과 결사사람들』의 창작경위를 밝히는가 하면, 일본 등지에서 나병문학이 유행하는 데 흥미를 느껴 쓴 소설이 『옥심이』로 이 작품을 발표한 이후 "일철의 문단적 지위가 한층 높아졌"으며, 『항진기』, 『기로』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문단적 지위가 더욱 확실해" 졌다고 자평하기도 한다. 『낙일홍』의 집필동기에 대해서도 남해 교사시절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서산 위로 기울 어지던 붉은 저녁 해를 본 감동으로 쓰게 된 소설인데, "문단의 평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일철에게는 버리고 싶지 않은 작품"이라 개인적 소회를 피력하기도 한다. 아울러 해녀를 소재로 한 소설을 구상하던 때에 남해 바닷가에서 우뚝가사리 채취를 위해 무리를 지어 살던 제주도 해녀들과 조우하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쓰게 되었다고 『월광한』의 창작 계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잡지 『춘추』에 발표했던 소설 『묵은 자장가』(1941) 역시 거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요산의 미완성 자전소설이 지닌 텍스트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오실부락』, 『낙동강』, 『마르지 않는 강』이 모두 1928년 봄 분옥의 우귀 신행으로부터 시작되며 요산의 유년기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다. 작가의 유년기가 탈락된 데에는 1950년대 발표했던 『농촌세시기』도 이유가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1955년 2월부터 1956년 2월까지 『경남공론』에 6회 연재되다 미완으로 중단된 『농촌세시기』는 최미진의 연구에 따르면, “김정한 자신의 가계(家系)의 인물을 모델로 하고 유년기 작가의 체험을 형상화한 자전적 소설”이며 장편 자전소설로 구상되었으나 발단 정도에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³²⁾ 따라서 『농촌세시기』의 존재가 작가가 말년에 기획한 자전소설에서 자신의 성장서사를 생략하게 된 이유가 되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달리, 앞서 언급했듯이 김정한이 아내에게 쓴 편지 형식의 에세이를 통해 아내 조분금과 함께 겪어온 수난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자서전 같은 글이라도 써 볼까 하는 엄두”를 내보기도 한다고 언급한 점을 엄두에 둔다면, 자전적 소설이긴 하나 애초 요산이 자기 서사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족의 역사, 특히 자신과 함께 “남다른 고비와 고통”³³⁾을 겪어온 아내의 삶을 비중 있게 조명하려는 의도가 관철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둘째, 부재하는 아들/청년 대신 아버지/노인과 며느리/여성이 집과 고향을 지키고 “노동과 생활의 주체”³⁴⁾가 되는 김정한 소설의 특이성이 자전소설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특히 『오실부락』, 『낙동강』, 『마르지 않는 강』 모두 전반부는 일철보다 외려 ‘분옥’과 요산의 아버지를 형상화한 ‘오실어른’이 소설을 견인하는 중심인물로 부각된다. 이는 언급했듯이 요산이 자신보다는 아내와 가족의 삶을 조명하려는 집필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도 있으나, 아들이 죽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노인과 여

32) 최미진, 『김정한의 미완성 장편소설 <農村歲時記>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8집, 2004. 12, 9~12쪽.

33) 김정한, 『이욱고 나와 함께 다 늙은 아내에게』, 앞의 책, 287쪽.

34) 이경, 『성난 눈과 지역의 정치학-김정한의 6,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9, 2012, 103쪽.

성이 서사의 주체가 되는 김정한 소설에 반복되는 특징이 자전소설의 창작방향과 조우한 결과로 보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결국 모두 미완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한이 처한 노년이라는 물리적 상황도 한 원인일 수 있겠으나 기왕에 제기된 요산의 장편 부재 원인도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요산에게 『삼별초』 외에 장편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논자들은 “작가의 강렬한 주제의식이 다양한 형식적 실험과 다성적인 목소리를 수렴하는 장편소설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³⁵⁾었을 것이라 분석하거나,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분법에 바탕을 둔 소설의 서사구조가 인물의 내면과 현실의 세부를 꿰뚫히게 드러내는데 장애가 됨으로써 이야기가 규모를 갖추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³⁶⁾이라 진단해 왔는데, 미완으로 끝난 그의 자전소설 역시 이러한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조선과 일본, 민족과 제국, 저항과 친일을 가름하는 선명한 이분법은 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기획된 자전소설을 여전히 지배하는 일관된 역사의식이자 완고한 서사문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정한의 이 투명한 서사야말로 어찌면 식민주의가 생산하는 불투명함을 증험하는 아이러니한 흔적인지도 모른다. ‘자서전 독서는 감추어진 내용을 환연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며, 저자의 언술 행위 속에서 나타난 명백한 모든 것에 몰두해야 한다’³⁷⁾는 필립 르죈의 지적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요산의 자전적 서사에서 기억의 결락과 공백을 천착하기보다 서사의 명징성에 투사된 작가의 실존적 감각을, 혹은 식민주의에 대응하는 정치적 무의식을 재독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탈식민 이후 식민지 근대를 기억한 요산의 자기 서사를 읽어내는 다른 독법이 되지 않을까.

다음 장에서는 김정한의 자전소설이 지닌 재현의 특이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35) 최미진, 앞의 글, 22쪽.

36) 전성욱, 앞의 글, 9쪽.

37) 필립 르죈, 앞의 책, 287쪽.

3. 식민지 근대의 기억/재현과 여성 서사의 구현

요산의 자전소설이 흥미로운 점은 무엇보다 일철과 더불어 분옥이라는 여성인물을 통해 식민지 근대를 기억/재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자전적 서사에 국한된 특징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김정환은 『사하촌』, 『옥심이』, 『기로』 등과 같은 해방 이전의 소설이나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뒹기미나루』 등 해방 이후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일제 식민지 시대와 독재치하의 한에 사무친 어머니들의 모습”을 줄곧 부조해 왔으며, 민족적 시련을 겪는 어머니를 통해서 빈번히 “우리 민족 전체의 수난을 상징”³⁸⁾해 왔다. 여성을 모성으로 어머니를 민족/민중적 어머니로 환원해온 요산의 소설은 기실 ‘부권화된 여성’³⁹⁾ 형상화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가부장제란 대명제를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남성작가의 절충적 또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반영”⁴⁰⁾한다는 지적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일본발 근대의 타자로 배척되고 다시 조선 내부의 식민지로 점령되었던 ‘구여성’들을 발견했다는 점, 이들을 역사와 무관하거나 남성의 역사를 지지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전유하기보다 “정의와 도덕이 짓밟히는 시대를 살아”온 “민족의 무한한 애환의 역사”와 연루된 존재로 부각했다는 점, 또한 여성들을 역사적 재난의 수동적 피해자로 지정하기보다 수난의 역사를 타개해 가는 능동적 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요산은 ‘경험적 성별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페미니스트 의식을 형상화한 양성적 작가’⁴¹⁾로 인정받거나, 그의 소설은 “민족문학이면서 동시에 여성문학일 수 있는”⁴²⁾ 예외적인 텍스트로 평가받

38) 김정환, 『나의 작품 속의 모성상(母性像)』, 『사람답게 살아가라』, 254쪽, 256쪽.

39) 이상갑, 『역사에 대한 비극적 인식, 그 순화 구조』, 『김정환-대쪽 같은 삶과 문학』, 277쪽.

40) 송명희, 『김정환의 『수라도』에 나타난 여성원리』, 『현대소설연구』 5, 288쪽.

41) 위의 글, 288쪽.

기도 한다.

기실 근대가 청년의 시대이고 근대문학이 곧 청년문학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여성과 노인을 서사의 주체로 발탁한 요산문학은 단연 이례적이다. 『추산당과 곁사람들』을 해방 이전 요산문학의 최고 수작이라 평가한 김윤식은 그 근거로 ‘강명호’라는 “비판적 지식인의 등장”을 제시하면서, “자각적인 개인”의 부재를 근대소설에 미달된 요산문학의 한계라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⁴³⁾ 김윤식이 언급한 비판적 개인이 청년, 특히 지식인 청년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요산이 일관되게 서사의 터전으로 삼았던 낙동강 주변의 농촌/지역은 기실 근대 이후 실존하는 청년의 삶터가 아니라 탈향한 청년의 낭만적인 고향이 되었으며, 때문에 한 논자의 지적처럼 아들/청년이 사라진 땅에 현존하는 이들은 ‘노인과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⁴⁴⁾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념적으로 가공하지 않는 이상, “팔자 좋은 젊은이들”은 “일본으로, 서울로 유학”⁴⁵⁾을 떠나고, 의로운 아들들은 『수라도』의 ‘밀양양반’처럼 저항운동에 희생되고, 하여 지역에 존재 가능한 청년이란 『그물』, 『사하촌』의 ‘또쫓이, 들깨, 철한이, 봉구’들처럼 즉각적 분노는 있으나 비판적 인식에는 이르지 못한 농민들이거나, 『옥심이』의 ‘천수’처럼 병든 아들이거나, 혹은 “인테리겐차”에서 “인충”⁴⁶⁾으로 전락 해가는 『항진기』의 ‘태호’, “<니이체>니 인간성이니 하는 것”을 버리고 “노동기계”⁴⁷⁾로 파괴되어가는 『기로』의 ‘두보’처럼 도시로 나가 패배를 경험하고 돌아온 무기력한 아들이었다.

때문에 자각한 청년에 계몽되는 관념적인 향토가 아니라 청년이 떠나거나 죽거나 의사죽음에 이른 실존하는 농촌에서 노인과 구여성은 지역

42) 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 『여성문학연구』 7호, 2002, 146쪽.

43) 김윤식, 『추산당과 가야부인-김정한론』, 『한국문학논총』 제50집, 2008, 6쪽.

44) 이경, 앞의 글, 103쪽.

45) 김정한, 『사하촌』, 『김정한전집·소설 1』, 작가마을, 2008, 46쪽.

46) 김정한, 『항진기』, 『김정한전집·소설 1』, 111쪽.

47) 김정한, 『기로』, 『김정한전집·소설 1』, 157쪽.

의 적나라한 실재이며, 이들을 서사화한다는 것은 “꿈같은 생각만으로써 글을 쓰는 버릇을 배우지 못”⁴⁸⁾한 요산에게는 당연한 귀결이었을 터다. 요산문학의 특이성은 무엇보다 이들 전근대적인 타자로 배제된 자들을 ‘비근대적’인 주체로 달리 재현한 것이며, 그 최대치를 보여준 소설은 주지하듯이 『수라도』(1969)일 것이다. 민족/민중의 수난과 고통을 체현한 『수라도』의 ‘가야부인’은 서구/일본발 근대화/식민화의 폭력을 증험하는 동시에, 유교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시아버지 오봉선생에 맞서 미륵당을 관철하고 천금새로 대표되는 미신과도 대결함으로써 전통을 추종하지도 서구/일본적 근대를 추수하지도 않는, 전통을 갱신하고 다른 근대를 모색하는 실천적 주체로 표상된다. ‘가모장’으로 거듭나는 구여성, ‘늙은 청년’으로 부조된 노인은 그러므로 요산 소설에서는 전근대적인 기표가 아니라, “전통에 완전히 귀속되거나 전통을 완전히 부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일화 기제”에 거리를 두는 “비동일화”⁴⁹⁾를 실현하는 주체, 곧 비근대적 행위자가 되며, 아울러 농촌/지역은 이들이 분투하는 역동적 장소로 다시 전유된다. 민족/민중적 전통과 새롭게 접속하면서 비서구적 근대를 탐색하던 196,70년대 민족문학 진영이 『수라도』에 주목하고 요산문학에서 민족문학의 가능성을 독해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수라도』에 대한 백낙청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목된다.

예컨대 무엇이 <전통적>이고 무엇이 <근대적>이나 하는 것부터가 그리 쉽사리 분류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더욱 실감하게 된다. (...) 『수라도』가 다루는 역사적 상황, 즉 일본제국주의 식민지가 된 한국이라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일제에 대한 저항이 참으로 의의있는 모든 사회변혁의 전체조건이 되는 만큼, 일제가 주도한 어떤 <근대화>에 쉽사리 적응하는 것보다 가야부인의 유교적 덕성이 훨씬 진보적인 작용을 한다.(...) 가야부인과 시아버지의 갈등을 통해 평등한

48) 김정환, 『낙동강의 냇두리』, 『사람답게 살아라』, 33쪽.

49)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29쪽.

인권과 보다 균형잡힌 가족관계를 지향한 뚜렷한 <근대화>가 이루어진 셈이며 항일투쟁의 관점에서 오봉선생의 척사위정과의 한계를 넘어, 보다 폭넓은 민중적 기반과 인간적인 포용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무당 <천금새>가 미륵당에서 물밥을 뒤집어쓰는 이야기도 그렇다. 여기서도 전통사회의 고유한 풍습이 외국인 관광객이나 민속문화연구가의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하리만큼 그려져 있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미신 타파라는 근대사회의 요구와 일치되어 있다. 가야부인의 미륵당처럼 그 자체가 민중의 반식민·반봉건적 의지와 직결되어 있는 종교적 표현이 미륵당과 다름없이 우리 전승문화의 일부이기는 하나 이미 민중문화의 발전적 의지와 유리되어 이와모도 참봉의 살풀이나 해주고 무당천금새 개인의 양심이나 좌우되는 무속신앙을 꺾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옳다.⁵⁰⁾

인용문에서 백낙청은 「수라도」를 통해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분류 가능한, 곧 대립하는 개념이 아님을 확인하며, 전통이 근대를 결핍하거나 혹은 근대에 이르지 못한 전근대적 지체(遲滯)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일제가 주도한 어떤 근대화에 쉽사리 적응”하지 않고 “오봉선생의 척사위정과의 한계를 넘어” “평등한 인권과 보다 균형잡힌 가족관계를 지향”해 가는 가야부인은 전통적인 동시에 “참다운 의미의 근대화”(같은 글, 261쪽)를 실천해가는 진보적인 주체가 되며, 그녀의 미륵당 역시 천금새의 미신과는 달리 민중의 반식민·반봉건 의지를 실현하면서 민중문화의 발전적 의지와 접속하는, 근대화와 배치되지 않는 다른 전통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 때문에 민족/민중적 전통과 조우하면서, 일본발 근대화를 청산하는 동시에 서구적 근대화를 답습하지도 않는 주체적 근대화의 경로를 탐문하던 백낙청에게 「수라도」는 유의미한 참조점이 되며, 김정한의 소설은 “복고주의나 국수주의”⁵¹⁾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문화의 탁월한 실물이 된다.

50) 백낙청, 『문화연구의 자세와 민족문화-김정한의 「수라도」를 중심으로』, 『민중문화와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257~261쪽.

51) 백낙청, 『민중문화 개념의 정립을 위해』, 앞의 책, 124쪽.

‘분옥’의 서사를 비중 있게 구축해간 요산의 자전적 소설은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수라도』와 겹쳐진다. 『수라도』의 가야부인이 요산의 아내인 조분금의 조모를 모델로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한데, 자전소설에서 분옥은 가야부인의 임종을 지키는 손녀 ‘분이’를, 녹산댁으로 불리는 분옥의 친정 할머니는 ‘가야부인’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자전소설에는 분옥의 “할머니가 설두를 해 세웠다는 미륵암”(A-(1))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수라도』에서 “윗녘에 삼 받으러 갔다가 오는 아랫데 부인네들”⁵²⁾을 집 마당에 불러들여 재우고 먹이는 가야부인의 인자한 성품이 부조되었듯이 자전소설에서도 “우대에 삼 받으러 갔다 오는 아낙네들이나 뜨내기장수들을 곧잘 재워 보내곤”(A-(2)) 하던 분옥의 친정 할머니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또한 “할머니의 전생애가 대견스럽고 우러러보였던”(152쪽) 『수라도』의 분이처럼 자전소설의 분옥 역시 “만 가지 일을 다 잘 알”며 “부처님의 자비심을 배우려”(*『낙동강』*) 친정할머니는 삶의 지표가 되는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분옥이 분이를, 분옥의 친정할머니가 가야부인을 직접적으로 환기할 뿐 아니라, 분옥의 서사를 구축하는 방식에서도 자전소설은 『수라도』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수라도』가 몰락해 가는 허씨 집안에 시집온 가야부인이 “가얏댁에서 가야부인으로 칭호가 바뀌고 어느덧 육남매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자부도 몇이나 거느린 버젓한 시어머니가 되”(160쪽)면서 마침내 시아버지인 오봉선생으로부터 집안의 “제일 큰 어른”(188쪽)인 가모로 인정받게 되는 여성 성장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분옥의 우귀신행으로 시작되는 자전소설 역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랐던 분옥이 환형(幻形)이 되어갈 정도로 고된 시집살이를 통과하면서 “양산 아야”에서 “수선 에미”(『낙동강』)로 이동하고, 종래는 “육지 같이 믿고 태산 같이 믿어오던”(E) 시아버지 오실어른의 최후를 지키는

52) 김정환, 『수라도』, 『김정환전집·소설 3』, 작가마을, 2008, 160쪽. 같은 작품의 인용시 본문에 페이지 수만 표시함.

믿음직한 며느리에 이르는 과정이 서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야부인이 양반집의 부녀자들과 달리 농사나 길쌈 같은 상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민중을 체현해 가듯이, 분옥 역시 “시골 반촌의 선비 내림 집에서 침공 이외 진일이라고는 해보지 못하고 자랐”(A-(1))이나 대농가인 시대에 와서 농사 수발을 감당하며 “한다하는 농군”(『오실부락』)으로 변신해 간다.

그러나 『수라도』가 가야부인을, 자전소설이 분옥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유사성만큼 차이 역시 분명하다. “가야부인이 겪은 갖은 고통은 그저 한 어머니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수난을 상징한 것”⁵³⁾이라 작가 스스로 밝힌 바 있듯이, 『수라도』가 가야부인을 민족사와 연루된 역사적 개인이자 가부장적 전통과도 대결하는 이질적 여성으로 조형하면서, 이 예외적인 여성을 통해 식민과 해방, 전쟁에 이르는 민족 수난의 내력을 기억하는 거시사와 망각되었던 여성의 삶을 가시화하는 미시사를 탁월하게 결합했다면, 자전소설에서 분옥은 대부분 여성의 수난을 부각하는 존재로 형상화되면서 그녀를 통해 “애비 성 하나 타 가주고 남의 가문에 가서 고생하기 마련”인 “여자의 인생살이”(A-(1))는 읽게 되나 민족사는 독해 가능하지 않다. 이는 요산의 자전소설이 일철을 조명하는 만큼 분옥에 비중을 두면서 일철과 분옥을 중심으로 한 가족사에 민족사를 부기하고자 구상되었으나, 실제로는 분옥을 통해 근대를 살아간 구 여성의 생애사가 술회되고, 식민지의 역사를 기억하는 주체는 일철에 대부분 위임되면서 식민지 근대를 기록/재현하는 거시사와 미시서사가 분리되는 한계를 노정한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라도』의 가야부인이 오봉선생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유교이념과 대결하면서 상처받은 여성/민중들의 안식처인 미륵당을 짓고, 한산도 사건으로 피검된 시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와모토 참봉이나 일경인 그 아들과의 대면도 불사하는, 즉 역사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기

53) 김정한, 『나의 작품 속의 모성상』, 앞의 책, 256쪽.

투된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탁류를 거스르려는 능동적 주체이며, 식민지라는 폭력적 근대와 불화하는 동시에 완고한 전통과 대결하고 불순한 습속을 척결해가는 비근대적 주체로 도약한 여성이라면, 자전소설의 분옥은 기실 구여성의 전형적 형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판무식을 부끄러워하는 빛이라곤 요만치도 보이지 않”는 “한국 구식 여성들의 통폐”(C)로 부정되다가 다시 ‘구식결혼의 희생물’(A-①), “반가의 유품이 낳은 불쌍한 사람”(A-②)으로 연민의 대상이 되던 그녀는 마침내 남편인 일철에게 “가정의 낙”을 느끼게 하는 “현처”(F)로 인정되고 묵묵히 만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효부’로 최종 승인되면서 성장을 완료한다. 역사의 변화와 합류하고 가부장제와 협상하는 가야부인이 소설이라는 조건 안에서 요산이 조형한 ‘가능태’로서의 여성이라면, 시대의 변화를 살기보다 가부장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분옥은 자전의 규약 안에서 탄생한 ‘현실태’로서의 여성이 아니었을까.

분옥의 서사가 지닌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라도』가 식민제국의 폭력이나 미신, 완고한 유교 이념 등 외부와 대결하는 가야부인에 치중했다면, 자전소설은 남성편애적인 시대에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감당하는 분옥의 갈등하는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다시 말해 분옥은 “옛 한국여자들의 내림”을 이탈하지 않는 “구식여자”이 되 내림된 여자의 인생살이를 의심하는 낯선 구여성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일철은 졸업시험을 핑계로 읍에서 돌아오지 않았었다. 상급학교에 갈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지 분옥에게는 궁금했다.

“여자같이 불쌍한 기 어데 있노. 재우(겨우) 애비 성 하나 타 가지고 남의 가문에 가서 일만 새가 빠지도록 하다가 안 마나!

입버릇처럼 이러시던 친정 할머니의 말씀이 내쳐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 여자라고 해서 이렇게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을 텐데……

분옥의 머리에는 인생살이에 대한 의문이 점점 자리잡기 시작했다.
시집오기 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 『마르지 않는 강』(A-(1))

상일을 모르고 살아온 분옥이는 이런 상일 구덩이에서 7년이란 세월을 남편 없이 견디어 나가질 것 같지 않았다. 갓 남편을 떠나보낸 참이라 그런지 암만해도 도중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억지로 벗단 묶는 데만 정신을 써보았다. 그러나 신행 가마를 댔을 때의 일이 자꾸만 생각났다.

『잘 가거래이……』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에 섞여 들리기도 했다. 신행 가마를 댔을 때의 꿈이 탈곡기에서 떨어지는 낱알처럼 산산히 부서져 흩어졌다.

- 『낙동강』

요산 소설의 특성은 “민중의 위치에서 서술”⁵⁴⁾하는 것이라는 한 논자의 지적처럼, 분옥을 수시로 초점화한 소설은 분옥의 시선으로 아들을 편애하고 미신을 맹신하는 시어머니나 “시골사람치고는 한 걸음 앞서 개명을 했다지만” “안식구들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오실부락』) 시아버지 오실어른을, 또한 아내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무정한 남편을 성찰하면서, 구식여자의 인생살이에 대한 의문을 발동하고 혼인에 대한 회의와 탄식, 절망과 체념을 오가는 분옥의 동요하는 내면을 가감 없이 현상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분옥의 갈등을 자극하는 인물이 일철의 여동생으로 등장하는 ‘일순’이다. “딸자식일랑 대수롭잖게 여”기며 “먹는 게나 입는 게나 그밖에 어천만사에 있어서 끝끝내 남녀 차별이 심한”(『낙동강』) 어머니에 도발하며 야학당에 다니고, 분옥에게도 공부를 권하며 강해지라고 조언하는 일순은 전통적인 여성의 규범 안에서 가부장제와 협상했던 가야부인과는 또 달리 남성편향적 질서를

54) 구모룡, 앞의 글, 364쪽.

이반하면서 신식 여자의 삶을 욕망하는 여성이다. 때문에 분옥은 친정 할머니의 당부와 일순의 충고가 상충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순의 조언에 납득된다.

『올끼 너 그리 약하기 나가다간 이 집에선 시집 못 산대잇!』

이런 말을 일순은 거침없이 했다. 할 말을 넣어두고 썩히는 성미가 아니었다. 이런 점을 두고서 큰댁 종숙모를 닮았다고 했을까. 분옥이는 얼핏 생각해 보았다.

(올끼 너 그라다간 이 집에서 시집 못 산다고……?)

야학당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가? 분옥이는 섬쩍했다. 자기가 배운 것과는 정 반대다.

『조심해서 살아래이.』

하고, 친정 할머니나 어머니가 신신부탁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닐 것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부모님의 뜻을 좇아야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시누이의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 『낙동강』

그러나 구여성을 초과하는 일순의 등장은 이러한 번민을 넘어 분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동하지는 못하며, 가부장제 질서를 준수하며 ‘조심해서 살아야하는’ 여인네의 삶을 심문하던 분옥의 자각 역시 어머니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실종된다. 요산의 소설에서 흔히 목격되듯이 여성은 모성으로 회수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뚜막 정”을 나누는 분옥과 일순의 우애, 혹은 “설마’와 ‘제발’을 믿고 살아가는 아낙네들”(A-(2))의 유대는 주목된다. 가야부인이 재앙 같은 역사에 피붙이를 빼앗긴 여인네들과 더불어 미륵당에서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듯이, 분옥과 일순, 오실부락/성하동의 아낙네들 역시 노동의 피로와 여성 삶의 애환을 공유한다. 요산은 이념적 연대가 아닌 이 정념의 유대가 여성/민중이 수난의 역사를 통과해온 유력한 방식임을 부각한다. 그러나 『수라도』를 참조하면서 여성/민중의 위치에서 식민지 근대를 다시 재현하

고자 했던 요산의 기획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자전소설의 한 축인 분옥의 서사는 여성서사와 민족서사가 틈 없이 결합한 『수라도』에 끝내 육박하지 못한다. 이는 요산의 자전소설이 전자를 분옥에 후자를 일철에 배정하고, 분옥과 일철을 둘러싼 가족사에서 일철의 개인사로 이동해 가면서 소설(小說)을 누락하고 민족수난사라는 대설(大說)로 이행하려는 욕망에서 기인한 결과로 독해된다.

4. 수난/저항의 서사와 공백의 기록

식민지 후반기 역사적 기억의 주체로 ‘일철’을 발탁하기는 하지만, 자전적 서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철의 비중은 소설에서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분옥이, 후반부는 일철이 초점화자가 되면서 기실 일철은 텍스트 전체를 견인하는 서사적 주체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개인보다 가족에 투사된 민족의 수난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구상이 관철된 것일 수 있으나, 달리 지식인보다는 농민/민중의 토착적 현실을 탐사해온 요산문학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주지하듯이 “살아있는 농민들과 교섭”하고 “생활하는 민중의 구체적 감각”⁵⁵⁾과 교통해온 요산의 소설에서 지식인은 대개 부재하거나 부정되었다. 가령 해방 이전 소설인 『항진기』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태호는 실행은 없고 “꿈만 꾸는 근성”(121쪽)의 사회주의자로 그려지며, 『기로』의 두보 역시 “니이체니 인간성이니 하는 것을 버리고서 절박한 목전의 현실”(157쪽)에 투항해가는 패배한 지식인으로 등장하고, “판에 박은 관리 생활에다 집에 오면 천도가 옳으나 그르냐(天道是耶非耶) 따위의 한문이나 파기가 일쭙”⁵⁶⁾인 『그러한 남편』의

55)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1, 232쪽, 244쪽.

남편 또한 현실에 등한한 퇴행적 인물로 재현된다. 『낙일홍』의 재모 역시 “학교의 공로자인 동시에 착실한 혼도”⁵⁷⁾인 자신 대신 일본인 교장을 발탁하는 “무작한 대우”(85쪽)에 분노하기보다 끝내 체념하며, 『추산당과 결사사람들』의 명호는 유학을 계기로 자각 없는 “군청 고원”에서 비판적 지식인으로 변신하지만, 추산당의 변덕에 학업을 중단하고 결국 “집안사람들에게 신세만 끼치게”(93쪽) 되면서 그 역시 행동/전망을 박탈당한 무력한 지식인이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민중들”⁵⁸⁾의 현실을 천착하고 “민중을 위한”⁵⁹⁾ 신념을 지지하려는 요산의 소설에서 지식인의 부재는 당연한 귀결일지 모르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읽히듯이 지식인에 대한 요산의 근본적인 불신 내지 불안 역시 부정적인 지식인 형상을 낳는 원인이 되었는지 모른다.

인텔리겐차 - 사전에서 말하는 관리, 교원, 기자, 저술가 따위 소위 지식인들은 변질을 잘 한다고 한다. 그래서 만해 선생은 바보 또는 미치광이란 뜻을 가진 치(痴) 자를 파자(破子)해서 지식이란 지(知) 자 위에 병든다는 역(疢)자를 뒤집어 씌워, 아는 것이 도리어 병(病)이라고 꼬집은 일이 있다.

지식인으로서 사람답게 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순국(殉國)의 선비 때 천 황현은 음독 전 그가 남긴 절명시(絶命詩) 끝줄에서 이렇게 남겼다. 『인간으로 선비 노릇하기 지남함이여!』

지식인들은 아는 것은 많으나 실천을 꺼리고 남을 탓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다』란 속담까지 낳게 됐다. 자기는 실천을 앓고 특하면 남만 탓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남의 꼭 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⁶⁰⁾

56) 김정환, 『그러한 남편』, 『김정환전집·소설 2』, 29쪽.

57) 김정환, 『낙일홍』, 『김정환전집·소설 2』, 59쪽.

58) 김정환, 『나의 작품 속의 모성상』, 앞의 책, 254쪽.

59) 김정환, 『끊임없는 자기 혁명을 위해』, 『사람답게 살아가라』, 284쪽.

60) 김정환, 『검장이는 큰 일을 못한다』, 앞의 책, 210~211쪽.

실천을 꺼리고 변절을 잘 하는 지식인들보다 “빈궁과 위축 속에 허덕이고 있는 농촌이나 농민의 생활”⁶¹⁾을 혹은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따라지들의 억울한 사연”⁶²⁾을 부조하는 데 진력했던 요산의 문학에서 지식인이 긍정적으로 재현된 경우라면 작가의 자기 체험을 서사화한 『어둠 속에서』(1970), 『과정』(1967) 등 소수의 작품에 국한된다. 해방 이후 창작된 이들 소설에서 요산은 식민 권력에 도발하거나(『어둠 속에서』), 독재 권력에 반발하는(『과정』) 지식인 형상을 주조했으며, 이 예외적인 인물들에는 모두 작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탈식민 이후 식민지 근대를 기억한 자전소설에서도 요산이 투사된 일철은 『어둠 속에서』의 ‘김인철 교사’나 『과정』의 ‘허 교수’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반항하는 불온한 지식인으로 등장하며, 일철이 견인하는 식민 체험의 기록은 불령선인의 지난한 저항서사로 일관되게 기술된다.

소설이나 에세이를 통해 요산이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반일(反日) 혹은 항일(抗日)의 이력들은 자전소설에서도 누락 없이 서사화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울산 대현학교 시절 조선인 교원연맹사건으로 1차 피검되고, 양산 농민투쟁을 지지한 심폐사이저 운동으로 재차 검거되면서 일본 유학을 중단했으며, 남해보통학교 재직 시절에는 일본인 교장들과 끊임 없이 불화했고 일제가 내선일체 정책을 강화하면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황민화 정책을 강제하자 교사직에 회의를 느끼던 중,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인수하고 “독자들을 모아놓고 민족애를 고취”(E)하는 연설을 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차 피검된다. 구금에서 풀려나오자 이미 동아일보를 포함한 조선어 신문·잡지가 모두 폐간된 상황에서 물자통제 단체인 경남면포조합 서기로 근무하면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다 해방을 맞이하게 된 ‘불령선인’의 행로가 요산이 구성한 식민치하를 통과해

61) 김정한, 『후기』, 『김정한전집·소설 5』, 246쪽. 『후기』는 1956년 요산이 일제강점기 발표했던 작품들을 수록한 작품집 『낙일홍』에 실린 글이다.

62) 김정한, 『자서』, 『김정한전집·소설 5』, 249쪽. 『자서』는 1971년 발표한 작품집 『인간단지』에 수록되었다.

은 일철/자기의 서사이다. 여기에 조선인을 업신여기던 일본인 산림주사와 대립하거나 민족계열 인사들과 교류하던 일화, 해방 직전 일제의 불령선인 검거 소식에 피신한 얘기 등이 삽입되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E)고 친일정책에 대해 “자기주장을 내세우는”(C) 일철의 민족주의적 자기서사는 한층 견고해진다.

그런데 이 균질적인 저항의 서사에 결락되는 것들이 있다. 먼저, 식민제국인 일본 체험이다. 알려졌다듯이 요산은 1928년 조선인 교원연맹 결성 사건으로 그의 첫 직장이던 울산 대현학교에서 해임 당했고 1929년 유학을 위해 도일한다. 요산이 밝힌 이 시기의 이력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서 와세다대학 문학부에 입학했고 독서회에 가입해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했으며, 안막, 이찬, 이원조 등과 교류하면서 계급사상을 자각하게 되었고,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학지광』편집에도 관여하게 된다.⁶³⁾ 1932년 여름 귀국하기까지 약 4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머물렀으나, 그의 자전소설에서 식민본국인 일본에서 보냈던 시절의 체험은 발견되지 않는다.

『인가지』(1943)에 대한 언급 역시 부재한다. 자전소설에는 해방 이전 요산이 창작한 소설이 모두 소개되어 있으며, 일본에 있던 일철이 여동생 일순에게 편지로 등단 소식을 알리는 「그물」이나 1941년 잡지 『춘추』에 실었던 「묵은 자장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설들에 대해서는 창작배경이나 후일담까지 요산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로 등단하기 이전 발표했던 시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희곡인 「인가지」 역시 자기 창작의 본령이 아니기에 누락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생전에 「인가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작가이기에 자전소설에서 의식적인 망각을 결단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근대를 체험한 일철의 서사에는 분노나 저항은 있되 (내적)갈등은 대부분 제거되어 있다. 신사참배와 국민복 착용은 글

63) 「작가 해적이」, 『김정한전집·소설 1』, 317~318쪽 참조.

육의 체험으로 기록되나 내적 분열을 유발하기보다는 국가 없는 민족의 수난사로 재현되며, 총독부가 기획한 어용문인단체였던 조선문인협회에 가입되었던 사실은 “문단에 조금이라도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모조리 그 회원으로 묶으려 했던 협회의 노림수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원 명단에 올려져 있었”(D)던 예기치 않은 해프닝으로 언급된다. 그런가 하면 일제말기 수년 동안 경남면포조합의 서기로 근무한 경험에 대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식민지와 제국의 욕망 사이를 유동해야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자기변민을 피력하기보다 “성도 말도 빼앗기는 판국에 지하운동에 들어가지 못하는”(E) 피식민자의 절망을 부각하고 있다. 때문에 이 균열 없는 서사에는 임화의 개념을 빌려 말하자면 ‘현실’은 있으나 ‘생활’은 부재한다. 1940년 발표한 평문에서 임화는 ‘생활의 발견’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날 리얼리즘을 성찰하고 리얼리즘의 갱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일상성의 세계”가 생활이라면 “현상으로서의 생활과 본질로서의 역사를 한꺼번에 통합한 추상물”이 ‘현실’이다. 리얼리즘은 “현실의 표현에 중점을 둔 작가의 예술적 태도”이지만, 현실이라는 무형의 본질은 생활이란 유형의 세계를 통해서만 포착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을 좇는 열정의 나머지 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이 지난 리얼리즘의 과오이며, “현실로서의 생활”을 발견하는 것이 리얼리즘의 새로운 길이라 임화는 지적한다.⁶⁴⁾ 알려졌다시피 임화가 요산의 『사하춘』이나 『항진기』를 언급하면서 “호기적(好奇的)인 기대”⁶⁵⁾를 걸었던 것은 바로 김정한의 소설이 소위 ‘신사프로문학’⁶⁶⁾에 걸땀되었던 이 ‘현실로서의 생활’을 내재하고 있었던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 그 생활이란 『항진기』의 두호를 통해 피력되듯이 “레닌인가 하는 사람의 조직론만 읽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줄” 아는 “매양 꿈만 꾸고” “실행한 일”이 없는 자들이 놓친 것이며, 생활을 사상한 현실이란 『항진기』의 태호

64) 임화, 『생활의 발견』,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263~268쪽.

65) 임화, 『소화 13년 창작계 개관』, 앞의 책, 254쪽.

66)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1, 244쪽.

를 통해 간취되듯이, 생활의 틈입을 허용하지 않고 “자기”⁶⁷⁾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진력하는 추상에 불과한 것이다. 현실로서의 생활을 발견한 작가로 추대되었던 요산의 자전소설은 아이러니하게도 생활과 유리된 현실에 압도된 것이 사실이며, 때문에 자기는 확고하나 타자는 삭제되고 사상(이념)은 선명하나 실감은 부재한 서사가 된다.

이와 같은 겹겹의 결락을 통해서 식민지 근대를 기억한 요산의 자전소설은 제국의 폭력을 증험하는 민족 수난의 서사이자 저항의 기록으로 귀납된다. 그러나 요산의 이 명징한 자기 재현의 서사야말로 식민주의의 본질을 역으로 환기하는 식민지 근대 체험의 기록은 아닐까. 신사참배에 관한 일화를 기억하면서 김정한이 은연중 토로하듯이, 식민주의란 가령 기독교도였던 한 여학생의 완강한 거부가 없었다면 신사를 참배하는 일이 “예사로” 하는 일상이 되도록 피식민자를 규율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사는 일철의 집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남산이란 야산 중턱에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남산신사라고 했다. 지금까지 예사로 보아오던 남산신사도 왕이란 여학생의 심정을 알고부터는 다시 보게 되었다. 꾸벅 꾸벅 학생들을 데리고 가 참배를 하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저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깊은 참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 『마르지 않는 강』(A-(2))

임종국 역시 『친일문학론』에 수록한 「자화상」에서 일본인들이 던지는 차별의 발화들에 자신은 분노하기보다는 무지했으며, 때문에 “검도 하며 총검술을 배우”거나 “배낭에 九九식 총과 대검을 찬 상급생들이 하늘만큼은 장해 보였”고, “해방이 됐다고 세상이 별척 뒤집혔”으나 실은 해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덩달아 좋아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1929년생인 임

67) 김정한, 『향진기』, 앞의 책, 119쪽.

중국이 민족을 자각하면서 자신을 “그토록 천치(天癡)로 만들어 준” 일본 제국주의 일체를 “증오”하게 된 것은 해방 이후였다는 것이다.⁶⁸⁾

식민제국에 자기를 전적으로 기투하며 일본인 되기를 욕망한 친일파만이 아니라, 식민화의 기율을 일상과 신체에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해 가는 내선인(內鮮人)을 주조하는 것이 식민주의의 실체라면, 균열을 삭제한 요산의 균질적 서사는 식민주의의 이 위험한 실질이 역설적으로 투사된 텍스트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수난과 저항으로 일관된 요산의 자전소설이야말로 식민주의의 공포를 공백으로 기입한 식민지 근대 체험의 적나라한 기록으로 독해 가능한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새로운 휴머니즘으로서 민중서사의 길

“꼭 문학에 반해서, 혹은 문학가가 되고 싶어서 문학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 조국 없는 소년들의 감정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 길 이외에는 위안과 그보다 삶의 의욕 같은 것을 가질 구멍이 없었기 때문이다.”⁶⁹⁾ 김정한은 에세이를 통해 이러한 문학 입문의 내력을 여러 차례 술회한 바 있다. 제국의 이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식민지 청년들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정신의 해방구와 같은 것이 문학이었다는 요산의 진술은 자전소설을 통해서도 피력되고 있다. 가령 1932년 양산농민조합 운동에 연루돼 검거되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남해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내려오던 절망의 시기에, 혹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여학생의 일에 충격을 받고 자괴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던 때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와중에 동아일보 강제폐간 소식을 듣고 통곡하던 상황에서 요산/일철은 일관되게

68) 임종국, 앞의 책, 5~6쪽.

69) 김정한, 『저항의 물결 속에서』, 『낙동강의 파숫꾼』, 72쪽.

구원의 계기로 문학을 (재)발견한다.

이곳에 오게끔 주선했던 이의 입장을 생각해서 울산서 한 것 같은 고집은 피우지 않았다. 가령 학생들 앞에서 하는 부임임사에서 조선말을 쓰는 따위. 요컨대 되도록 남처럼 치닥거리 나가겠다고 생각했었다. 다행히 학교에 곧 정이 들었다. **학교 일에 충실하면서 숙원인 문학공부를 계속해 보겠다고 뜻을 굳혔다.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 『마르지 않는 강』(A-(2))

겨우 열 서넛 살 되는 제자 왕양의 억척스런 신사참배 거부에서 받은 충격이 컸던지 일철은 학교가 파하면 학교에 남아 있기가 싫었다. 곧장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다. 집에 돌아올 때가 많았다. 집에 돌아오면 잠시 수남이의 재롱을 구경하다간 곧 자기 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 **실은 오래 뼈무르던 소설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 『마르지 않는 강』(A-(2))

민족지의 계속 발간을 돕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수영처 부근의 어떤 음식점에 그 부근 독자들을 모아놓고 동아일보 사수 좌담회를 하는 도중에 어느 놈의 밀고에 의한 것인지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일철 등 몇 사람을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끌고 갔었다. 29일 구류처분을 받고 감방에서 썩고 있는 중인데 하루는 간수가 가까이 오더니 인제 나가게 됐구먼요? 하였다. 무슨 뜻이냐고 다그쳐 물었더니 **엇그제 동아일보가 강제폐간 됐지요, 며. 일철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싶었다. 인제 그에게 남은 길은 문학의 길뿐이라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 『마르지 않는 강』(E)

인용문에서 요산은 자신(일철)의 절망이 민족적 수난에서 발원하며, 문학은 자기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자 세상에 타전하는 저항과 분노의 다른 발화임을 환기한다. 자전소설에서도 ‘문학’과 ‘민족’의 조우는 유력하게 목격된다. 실체로서의 농민/민중을 통해 민족을 발견한 요산에게 민

족은 단지 지식인의 “꿈같은 생각”⁷⁰⁾만은 아니며 민족문학이란 비단 민족주의에 지지되는 상상적 구성물만은 아니었다. “문학을 하려면 우선 그 소재가 되는 현실부터 똑똑히 알아야 된다고 믿어 왔던”(A-(2)) 요산에게 민족은 곧 몫을 가지지 못한 현존하는 민중의 다른 이름이며, 때문에 그가 진력한 민족문학의 실재는 주지하듯이 ‘농민소설’, 곧 민중문학이었다. 자전소설에서도 이는 간취된다.

게다가 또 삼남지방에 수해가 심했던 때라 도처에서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미나미는 종전과 같은 조정(調整)이란 미지근한 방법은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그 해 9월 쟁의가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하류의 농민 6백여 호를 그들의 식민 노예로 만주로 강제 이민시키는 만행을 강행하는가 하면, 항일의 뿌리를 뽑기 위해 소위 「조선사상보호감찰령」이란 것을 공포하고는 불령선인으로 짐 찍혀있던 청년들을 특하면 체포 투옥하였다.(중략) 이런 시국에 작가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어떤 부류들처럼 막연히 인생? 사랑? 췌! 일철은 그들처럼 영리하지는 못했다. 굶실거리기 싫어 농민소설이랍시고 몇 편 갈겨 보았지만 한의 십분의 일에도 차지 않았다.

- 『마르지 않는 강』(D)

그에게 민중이란 지식인이 계몽해야 할 관념적 허상이 아니라 지식인의 환상을 가격하는 능동적 존재이며, 그들과의 조우는 “자기를 앞세우는” 지식인의 안일을 심문하고 “훌륭한 작가가 되어보겠다던” 자족적인 욕망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순가락을 손에 든 코흘리개 애들이 그녀들의 뒤를 부산하게 따랐다. 어머니가 품팔이 다니는 집 애들은 곧잘 그렇게 해서 끼니를 때우러 다니는 것이 이곳 농촌의 풍경이기도 했다. 일철이는 그러한 애들이 원숭이 새끼처럼 어머니를 곁에 딱 붙어 앉아서 걸궤처럼 순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농촌의 꺾박한 모습을 새삼 마음 아프게 느꼈다. 흔히 쉽

70) 김정한, 「낙동강의 냇두리」, 『사람답게 살아가라』, 33쪽.

게들 말하는 「남의 일 같잖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남의 일 같잖다는 말은 결국 자기를 앞세우는 입장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 바로 농민들 전체의 일이란 생각이 비로소 굳어지기 시작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훌륭한 작가가 되어보겠다면 그런 막연한 생각 따위 어리석고 건방진 꿈이라고 생각했다.

- 『낙동강』

인용한 글에서도 확인되듯이 요산에게 민중이란 민족의 차원을 초과하며, 그의 민족주의는 민중주의와 만나고 이는 다시 휴머니즘과 합류한다. 김정한이 의미하는 민중주의란 가령 “현실의 걸썩데기만을 묘사”하지 않고 “적막을 곧 평화”라 오인하지 않으며 농촌의 망망한 들녘에서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닌 “일그러진 민중의 표정”⁷¹⁾을 읽어낼 수 있는 감각의 재배치라 할 것이다. 요산에 따르면, 이 같은 민중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을 끝끝내”⁷²⁾관철하려는 휴머니즘이기도 하다. 따라서 요산에게 문학이란 역사의 곁을 거슬러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을 박탈당한 자들의 위치에서 역사와 현실을 재독하는 윤리적 행위이며, 그는 이에 부합하는 문학을 민중문학이라 지시한다. 해방 전과 후를 막론하고 “‘불온’이란 이름의 수법이 우리사회에서 내쳐 버려지지 않”⁷³⁾는 현실에서 요산이 시대를 초월해 일관되게 견지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방관하지 않는 새로운 ‘휴머니즘’”⁷⁴⁾으로서의 민중문학이 아니었을까. 인간을 회복하려는 민중문학의 실천은 또한 작가 김정한에게는 인간됨을 성찰하고 인간으로 살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기도 했다. 김정한에서 금곡정환으로 다시 1147번으로 실존의 변전을 압박하는 질곡의 역사 속에서 요산은 자신을 향해 “나도 사람인가”라는 날선 질문을 던지는 작가로 남고자 했으며, 역사가 제출한 매서운 화두를 회피하지

71) 김정한, 『민중문학과 리얼리즘』, 『사람답게 살아가라』, 16~17쪽.

72) 김정한, 『한국문학과 인간구제』, 『사람답게 살아가라』, 237쪽.

73) 김정한, 『불온이란 이름의 딱지』, 앞의 책, 85~86쪽.

74) 김정한, 『한국문학과 인간구제』, 앞의 책, 237쪽.

않는 “배운 사람 구실”을 감당하고자 했다. 미완으로 끝났으나, 그의 자전소설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현재”를 온몸으로 살고자 한 역사적 인간이자 “인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윤리적 인간이 되고자 분투했던 요산이며, 민족주의적 자기서사의 외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나 민중을 서사의 주체로 발탁한 요산의 자전소설을 통해 중국적으로 간취하는 것은 새로운 휴머니즘으로서의 민중서사에 육박하려는 요산의 문학적 열망이다.

외로울 때는 가끔 울더스 헉슬리의 말을 머리에 떠올리곤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같은 경우, 인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뿐이다.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재 -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고 옳게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천(梅泉)의 절명시(絶命詩) 한 구절 『배운 사람 구실하기 지난(至難)함이어』가 나를 늘 당황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도 길을 걷다가 부지중 균소리를 내뿜는다.

『나도 사람인가?』

- 『도도한 탁류 속에 살다』⁷⁵⁾

75) 김정한, 『도도한 탁류 속에 살다』, 앞의 책, 299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김정한 미발표 자전소설 『오실부락』, 『낙동강』, 『마르지 않는 강』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김정한전집·소설』1~5, 작가마당, 2008.
김정한, 『낙동강의 파숫꾼』, 한길사, 1978.
김정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2. 2차 자료

- 구모룡, 「21세기에 던지는 김정한 문학의 의미」, 『창작과비평』, 2008, 360~375쪽.
김윤식, 「추산당과 가야부인-김정한론」, 『한국문학논총』제50집, 2008, 5~46쪽.
김주현, 「요산 김정한 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한국문학논총』제50집, 2008, 47~74쪽.
박태일, 「김정한의 희곡 『隣家誌』연구」, 『우리말 글』25집, 2002, 405~430쪽.
_____, 「김정한의 희곡 『隣家誌』연구」, 『지역문학연구』제9호, 87~111쪽.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252~263쪽.
송명희, 「김정한의 『수라도』에 나타난 여성원리」, 『현대소설연구』5, 1996, 261~289쪽.
윤정규, 「요산 김정한이 겪은 해방정국」, 『역사비평』30호, 1995, 65~72쪽.
이 경, 「성난 눈과 지역의 정치학-김정한의 6,7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9, 2012, 91~118쪽.
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 『여성문학연구』7호, 2002, 135~162쪽.

- 이순옥, 「1940년 6월 요산 김정한의 귀향 전후」, 『근대서지』8호, 2013, 227~240쪽.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5~6쪽, 479쪽.
- 임 화,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247~254쪽, 263~268쪽.
- 전성욱, 「해석의 정치-요산 김정한론」, 『동남어문논집』제28집, 2009, 217~239쪽.
- 정봉석, 「김정한의 <인가지>를 둘러싼 친일 담론 연구」, 『동남어문논집』제42집, 2016, 219~247쪽.
- 조갑상,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징함」,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 새미, 2002,
- 최미진, 「김정한의 미완성 장편소설 <農村歲時記> 연구」, 『한국문학논총』제38집, 2004, 213~243쪽.
- _____,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제54집, 2010, 243~272쪽.
-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1, 227~246쪽.
- _____,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 새미, 2002,
- 필립 르죈,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15~52쪽, 249~270쪽,
-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 황국명, 「요산문학 연구의 윤리적 전회와 그 비판」, 『한국문학논총』제51집, 2009, 289~318쪽.
- _____, 「요산 미발표작품 전시회 원고」, 『김정한문학관 자료집』, 2010, 152~176쪽.

<Abstract>

A Study on Unpublished Full-length
Autobiographical Novels of Jeong-Han Kim
- Memory of Colonial Modern and Aspect of
Self-representation -

Kim, Kyung-Ye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trategy and specificity shown by self-representative narration of Yosan Jeong-Han Kim, who recorded his colonial modern experience through unpublished or incomplete autobiographical full-length novels. Autobiographical novels of Jeong-Han Kim excavated by the Yosan Commemoration Society in 2008 has multiple titles like 'Osilburak', 'Nakdong River' and 'A River that Never Runs Dry.' Among these novels, 『A River that Never Runs Dry』 embraces the period from 1928 to the time after liberation in 1945. Although it ended up being an unfinished work, it is overwhelming in length compared to 『Osilburak』 and 『Nakdong River』. In this sense, this work is considered as the final autobiographical novel conceived by the writer.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entire picture of autobiographical novels written by Jeong-Han Kim. The three works titled 『Osilburak』, 『Nakdong River』 and 『A River that Never Runs Dry』 are identical in that they all start from the wedding march of 'Bunok' in the spring of 1928, do not illustrate childhood of Yosan, present characteristics of

* Pusan National University

Yosan literature where a father or elderly and a daughter-in-law or woman replace the role of family protection and labor due to absence of a son or young man, and are left unfinished. The following representation strategies were found through detailed reading of autobiographical novel.

First, he remembers and represents the colonial modern time through 'Ilcheol', a character made after Yosan himself, and a female figure named 'Bunok', who was modeled after his wife Bun-Geum Cho. This seems to project characteristics of Yosan literature that regarded the aged and women, who are often ruled out in the old-fashioned literary works, as non-modern subjects. In this aspect, the autobiographical novel is similar to 'Surado'. Bunok and her grandmother in the autobiographical novel are direct imitations of 'Buni' and 'Misses Gaya' from 'Surado'. Both novels take the style of a female growth narrative in which women turn into daughters-in-law and mothers who sustain their families while embodying the mass character. However, the two novels also have clear differences. Whereas Misses Gaya of 'Surado' is an active subject who joins the historical change and negotiates with the patriarchal system, Bunok of the autobiographical novel is illustrated as a figure who emphasizes the suffering of women instead of being involved in history. Bunok fails to break away from the typical form of traditional women.

Second, although Ilcheol is depicted as the subject who keeps historical memory of the late colonial period, it is noteworthy that Ilcheol (Yosan) does not play an important part of this autobiographical narrative. This may be the concept of the writer to record the sufferings of the ethnic group projected on a family instead

of an individual, but it may also be a characteristic of Yosan literature that had been exploring indigenous reality of peasants and people rather than intellectuals. On the one hand, Ilcheol reflecting Yosan is represented as a rebellious intellectual who resists unfair tyranny, and the colonial experience shown through Ilcheol is uniformly recorded as a narrative of resistance by a rebellious Joseon person. The true nature of colonialism is found not only in the pro-Japanese group that wishes to become Japanese but also in Naeson people who have implicitly internalized the colonial disciplines in their daily life and body. The uniform narrative of Yosan that removes the crack and consistently shows the suffering and resistance may be a text that paradoxically presents the dangerous nature of colonialism and a candid record of the colonial modern experience that filled the horror of colonialism with emptiness.

Key Words : Jeong-Han Kim, autobiographical novel, 『A River that Never Runs Dry』, 『Osilburak』, 『Nakdong River』, colonial modern, self-representation, female narrative, colonialism, humanism, popular literature

■ 논문접수 : 2017년 11월 20일

■ 심사완료 : 2017년 12월 2일

■ 게재확정 : 2017년 12월 18일